공연·전시·포럼…생활문화예술의 장 열린다

7~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소·우·리 페스티벌'
55개 생활문화단체·103개 동아리 참여

광주지역 생활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여 만드는 문화예술의 장.

생활문화예술을 펼치는 55개 단체, 103개 동아리가 한 데 모여 선보이는 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

문화예술축제 '소소하게 우리끼리 페스티벌(소·우·리 페스티벌)'이 오는 7~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단체들에게 4억6000여만원을 지원, 공연·전시·문학 등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단체들이 펼치는 축제다.

이날은 공연, 부스, 네트워크 등 3가지 세부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21개 팀이 참가해 풍물, 색소폰 연주,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7~8일 오후 4시~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우천 시 소공연장).

7일은 '풍물패 한울'의 풍물놀이, '광주시낭송 아카데미'의 소리와 몸으로 시를 표현하는 시낭송, 60세 이상 실버세대로 구성된 '무등합창단'의 합창 공연, '광주예향오카리나앙상블'의 무대 등 10개의 공연이 마련된다.

8일은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의 무대, '하카와히네 광주훌라걸스'의 하와이 전통춤, '문화공동체 딴청'의 뮤지컬, 통기타 동아리 '피크와 핑거링'의 공연 등 11개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부스 프로그램은 10개 팀의 다채로운 전시·체험·판매 등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7~8일 낮 12시~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우천 시 대강당).

전시 부스에서는 수공예 동아리 '아뜰리애'의 공예품 만들기 체험, '다슬'의 토우인형과 도자기 작품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렌즈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사진 작품을 볼 수 있는 '눈NOON', 다도체험을 할 수 있는 '예레헌', 한시집 등을 전시한 '서석전통한시보존회' 등의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8일 오후 6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로비에서 열리는 포럼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각 활동단체와 동아리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소우리 페스티벌'에서 펼쳐진 '루치칸티 어린이 합창단' 공연 모습(왼쪽)과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 전시 장면.

어쿠스틱·일렉트로닉부터 국악까지

싱어송라이터 '사라플라이'
8일 피크뮤직홀서 공연

싱어송라이터 '사라플라이'.

싱어송라이터 '사라플라이'가 오는 8일 오후5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공연 '지구별에서 문뜩'을 연다.

이날은 '문뜩', '괜찮아 힘내', '지구별' 등 자작곡과 함께 빌리 아일리쉬의 'Bellyache',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등 커버곡을 공연한다.

서울, 광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라플라이'는 어쿠스틱부터 일렉트로닉, 국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개성있는 음악을 선보이는 아티스트로, 지난 2016년 한강음악제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선행(기타, 보컬), 김용민(드럼), 오의성(베이스), 조석희(대금, 소금) 등 광주 지역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소울&재즈 그룹 '비스코시티', 가야금 연주단 '가연하비'의 초청 무대도 마련된다. '비스코시티'는 이날 냇 킹 콜의 'L-O-V-E', 엘비스 프레슬리의 'Hound Dog' 등 곡을 편곡해 무대에 올린다.

가야금연주단 '가연하비'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는 단체로, 이날 25현 가야금 2중주 '뱃노래', 국악가요 '쑥대머리' 등 전통음악과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비틀즈의 'Let it be' 등 대중가요를 연주한다. 입장료 1만5000원(현장구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물놀이·장구놀음·농악놀이 '흥겨워라'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 공연 모습.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7일 너덜마당 하반기 첫 공연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흥겨워라'의 올해 하반기 공연이 오는 7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서 첫 무대를 연다.

이날 공연은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대표 이시영)가 출연한다. '사물놀이' 한 마당으로 시작해 '소나기', '고깔 설장구' 등 장구놀음, '오고무', '태평무' 등을 공연한다.

이날은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 이시영 대표를 비롯한 10명의 두드리 회원과 함께 어린이 농악단 '풍물천지 아리솔' 단원 9명이 출연한다. 또 전통무용수 탁유빈, 김나영이 출연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한편 전통문화관은 지난달 전국 국악인과 국악단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토요상설공연에 출연할 작품을 공모해 8개팀을 최종 선발했다. 하반기 토요상설공연에는 무등울림 축제 행사 등 전통문화관 자체 기획으로 초대되는 5개 팀을 포함, 총 13개 팀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다음 공연은 14일 전통문화관 솟을대문과 너덜마당에서 떡메치기, 민속놀이 등 전통 체험과 창작마당극을 선보이는 '추석맞이 한가위 대잔치'가 예정돼 있다. 무료 관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퓨전음악 '아리랑 우리랑'

7일 광주 서구문화센터
'블랑'·바리톤 김대현 출연

퓨전앙상블 '블랑'

광주시서구문화센터(센터장 이운기)가 오는 7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퓨전음악공연 '아리랑 우리랑'을 연다.

광주 서구문화센터 '사랑방아카데미' 35번째 강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퓨전앙상블 '블랑'과 바리톤 김대현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이날 '블랑'은 '쑥대머리', '아리랑연곡', '쾌지나칭칭' 등 전통 음악과 '나성에 가면', '붉은 노을' 등 대중가요를 공연하며, 김대현은 가곡 '청산에 살리라', '오솔레미오' 등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16년 창단한 퓨전앙상블 '블랑'은 국악, 클래식,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영역의 음악을 편곡, 독창적인 연주를 선보이는 단체다. KBC광주방송, MBC라디오 등에 출연했으며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축하무대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오후 1시 1층 로비에서는 규방 공예 작품, 도예, 손뜨개 소품, 은공예 악세사리, 천아트, 퀼트 작품 등 수공예품을 사고 파는 '오손도손 장터'도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일 호남신학대서 '광주 전국 성악 콩쿠르'

'제1회 광주 전국 성악 콩쿠르'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열린다.

광주합창연합회(회장 박호진)가 주최하는 이날 경연은 음악 전공자들이 아닌 아마추어 성악가들을 위한 대회다.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성악 동호인, 아마추어 성악가들에게 무대에 오르는 기회와 함께 심사를 받고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에서 총 120여명의 참여자가 함께하는 이날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일반부), 실버부로 나뉘며, 동요,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독창, 중창으로 선보이며 경연을 펼친다.

시상은 대상, 금·은·동상과 특별상과 지도교사상 등이 준비돼 있으며, 입상자들에겐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이 주어진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는 광주합창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나 각 합창연합회원 단체의 공연에 특별출연할 수 있는 특전을 받으며, 오는 10월 26~27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제12회 광주합창제'에서 독창 무대에 오르게 된다.

심사위원은 전·현직 음악대학 교수들로 구성됐으며, 학생부 심사는 김귀만(전 서남대 교수), 강양은(전 호남신학대 교수)이, 일반부 심사는 김철웅(목포대 교수), 길애령(목포대 교수), 강양은이 맡는다. 심사 결과는 당일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관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인문학교육연구소, 16일부터 베트남 인문 강좌

인문학교육연구소(대표 양진호)가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 사상을 공부하고 베트남 남부로 인문기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연다. 가을학기 정규강좌인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 사상'은 오는 16일부터 7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 무등공부방(서구 농성동)에서 개최되며 종강 후 11월 2일부터 5일간 호치민 시와 동탑, 쩌우독, 떠이닌, 구찌 등지로 현지답사를 떠난다.

강의 내용은 '남북조 시기의 사상들', '마지막 왕조와 프랑스 침략', '독립을 향하여', '위정척사와 개화', '호치민과 하늘마을' 등으로 구성된다.

강의 및 전문가이드는 김성범 씨(철학박사·전하노이사회과학한림원연구원)가 맡는다. 김 씨는 한국의 동학 사상과 베트남의 근대 사상 비교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베트남 사상사'(역), '베트남 사상의 흐름'(저) 등을 통해 자타가 공인하는 베트남 연구자로서 최근 'EBS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현지 가이드로 활약하기도 했다. 16일까지 접수.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9-1667호

『광주광역시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등의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열람기간
2019. 9. 12.(목) ~ 2019. 10. 7.(월)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공고기간 : 2019. 9. 6.(금) ~ 2019. 10. 7.(월)

2 열람장소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062-613-3943)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8층

3 특구계획(안) 열람장소 비치

4 특구개요
○ 규제자유특구 명칭
- 국문명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 영문명 : Gwangju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for Unmanned low - speed special vehicle
○ 사업목적 :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저속 특장차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및 광주 자동차 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 특구기간 : 2020 ~ 2023(4년)
○ 규제자유특구 위치 및 면적 : 첨단·평동산단, 우치공원 등 일원 4.99㎢
-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적용되는 사업 신청 민간사업자의 사업장, 실증 허가 도로 및 장소
○ 세부사업특구 계획(안) 참조

5 의견제출 및 사업자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처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8층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062-613-3943)
- 이메일 : oksoon1016@korea.kr
○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
2019. 9. 12.(목) ~ 2019. 10. 7.(월)

6 공청회 개최(예정)공고
○ 공청회 개최목적 : 광주광역시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민간기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공청회 개최일시 : 2019. 10. 1.(화) 15:00 ~ 17:00
○ 공청회 개최장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 1층 대강당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55
○ 특구계획(안) 개요 : 기재 생략(공청회시 배부)
※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062-613-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서식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www.gwangju.go.kr)